

4일 Market Index			
코스피	5371.10	코스닥	1149.43
	(+83.02)		(+5.10)
금리 (미국 3년)	3.212	환율 (원/달러)	1451.85
	(+0.023)		(+6.45)



李 “中企·지방·청년에 골고루 온기 퍼졌으면”

5300도 뚫었다 “6000도 가시권”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총수들 “5년간 10개 그룹에서 270조 규모 지방투자 계획 중”
李 “RE100 등 특별법 지방 우선
서울서 먼 지역 재정 가중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삼성·현대차그룹·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대 그룹 총수들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청년 신규 채용과 지방 투자에 대해 “정부 정책들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기여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수출 사상 최고치’, ‘코스피 5000’, ‘신입사원 공채 확대’ 등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테니 민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를 넓히는 일에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범

제화할 것”이라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현장 기업의 의견을 기탄 없이 건의해달라고 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폴더블 아이폰 윤곽… 삼성, 차세대 Z시리즈 ‘맞불’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출시 힘 실려
내부 7.8인치, 주름 거의 안보일 듯
삼성, Z플립·Z폴드8 선출시 가능성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그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와의 정면 승부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화면을 갖춘 프리미엄 모델의 견조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애플의 합류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팁스터 인스턴트 디지털 등은 애플 폴더블폰의 내부 설계와 외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폴더블 아이폰이 올 하반기 아이폰18 프로 라인업과 함께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폴더블 아이폰에는 5500mA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될 계획으로 전해지며 이는 아이폰 라인업 중 최대급 배터리 용량이다.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7(4400mAh)와 비교해도 높은 용량이다.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맥무머스 X 캡처

삼성전자는 하반기 경쟁력을 갖춘 폴더블 신제품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 이전에 삼성전자가 Z플립·Z폴드8을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양사가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간 폴더블폰의 난제로 꼽혀온 디스플레이 주름 문제 개선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폴드8에 접힌 화면의 주름 시인성을 크게 줄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박형 유리(UTG) 구조와 레이저 가공 보강판을 통해 기존보다 접힌선이 눈에 띄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삼성전자

애플은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터치ID, 듀얼 후면 카메라, A20 칩, C2 모델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애플은 주름을 최대한 줄인 폴더블 OLED 기술을 우선순위로 두고 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접히는 구간의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구조(금속 지지판 등)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AI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는 지난해 4분

기 영업이익 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9.5%, 전 분기 대비 4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애플은 아이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6 회계연도 1분기(2025년 10월~12월) 영업이익 50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폴더블폰을 비롯해 플래그십 시장에서의 성과가 양사 간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기준 출고가 600달러(약 88만원)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2%에 달한 반면 삼성전자는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전체 판매량의 약 25%에 불과하지만 매출 비중은 60%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단순한 선점 경쟁을 넘어 본격적인 주류 시장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애플의 합류로 제품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세계시장에 돈이 넘쳐난 영향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 세계 국경 간 은행 신용이 45조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이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안전자산과 신흥 대체자산의 성적표는 정반대로 갈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일 오전 3시31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5.2% 오른 온스당 4906.82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최고치인 5594.82달러도 다시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말 금 목표가를 기존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올렸다.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600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뉴스레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신하는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표 1인1표제, 당내 부작용 우려 목소리… “포퓰리즘 양상 우려”
▲김 총리 “광역통합·검찰개혁·정교유착 근절 등 개혁과제 직접 챙길 것” /사진 뉴시스

▲민주, 장동혁 연설에 “유체이탈 화법…왜곡·선동 멈추고 입법 협조”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박능후 전 장관 선임

▲양이원영, 이연주에 “갈라치기 업으로 여긴다” 직격
▲조국 “공소청법은 ‘검찰 간판 바꾸기법’”…정 부안 수정 요구